

제2주

말소리의 생성 과정

□ 금주 학습활동

금주의 주요 학습활동(토론, 과제, 퀴즈 등)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주세요.

M . E . M . O

1. 말소리(음성)의 개념

1)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

: 말소리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말소리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 라고 하면 동물들의 소리나 첩보 영화에서 보았던 ‘뚜.뚜뚜.뚜뚜~’ 하는 모스 부호나 화재 경보 소리나 앰블런스의 사이렌 소리 등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이들도 말소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인간이 발음 기관을 이용해 만들어 내는 소리

: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 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동물들의 소리나 모스 부호, 화재 경보와 같은 것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소리이지는 하나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는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므로 말소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 낸 소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 중에서 한숨 소리나 비명 소리, 헉 차는 소리 등은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리이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우리는 말소리라 부르지 않는다.

3) 말소리의 개념 :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언어학적으로 의미 있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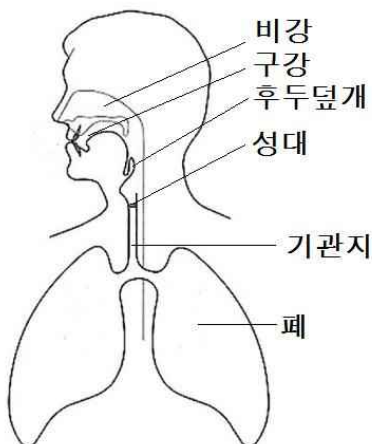
: 앞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인간이 발음 기관을 이용해 만들어 내는 소리’라는 정의는 한숨 소리나 비명 소리, 헉 차는 소리 같은 것을 말소

리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이런 소리들을 배제할 수 있는 말소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비명 소리’ 나 ‘한숨 소리’ 같은 것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이기는 하나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고 하면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그것은 이 소리들이 사람들의 인식 체계 안에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소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말소리라는 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들 중에서 언어학적으로 의미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2. 발음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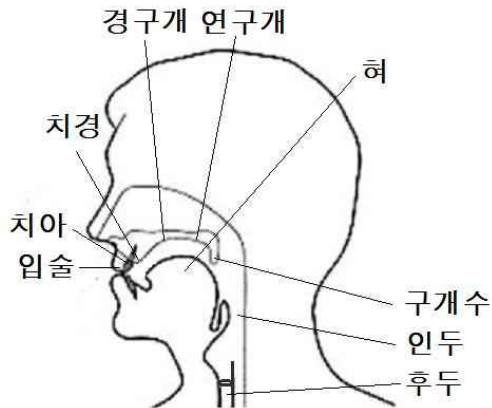
1) 주요 발음 기관

- (1) 폐, 기관지, 성대, 구강, 비강
- (2) 후두덮개는 발음에는 관여하지 않음.



2) 핵심 발음 기관

- (1) 후두 :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조절하는 기관. 기관지 및 성대 포함.
- (2) 구개수(목젖) : 구강음과 비강음을 조절하는 역할. 비음을 발음할 때는 구개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류가 코로 나가게 됨.
- (3) 입술, 혀 : 가장 적극적인 발음 기관으로 혀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조음 위치를 갖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짐.
- (4) 치아, 치경, 경구개, 연구개 : 자체의 움직임은 없으나 혀가 이 부위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조음 위치를 갖는 자음이 만들어짐.



3. 말소리의 생성 과정

1) 말소리의 생성 과정 : 발동 과정 → 발성 과정 → 조음 과정

- (1) 발동 과정 : 말소리의 재료가 되는 기류를 폐에서 생성하는 과정.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폐에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야 한다.
- (2) 발성 과정 : 폐에서 나온 기류가 후두를 지나면서 다양한 성질을 가진 소리로 만들어 주는 과정. 성대의 작용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평음, 격음, 경음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 (3) 조음 과정 : 성대를 지난 기류가 구강을 지나는데, 이때 구강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각종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다.

4. 말소리의 종류

1) 자음과 모음

- (1) 모음 : 기류가 구강 내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 (2) 자음 : 기류가 구강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

2) 자음의 분류

- (1) 조음 위치에 따라 : 기류가 구강의 어느 부분에서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등으로 분류
- (2) 조음 방법에 따라 : 기류가 구강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을 때 어떤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등으로 분류
- (3) 발성 유형에 따라 : 기류가 성문(성대 사이의 통로)을 지날 때 성대의

움직임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유성음, 무성음, 평음, 격음, 경음 등으로 분류

3) 모음의 분류

- (1) 혀의 전후 위치 :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등으로 분류
- (2) 혀의 위아래 위치 : 혀의 높낮이, 즉 개구도(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등으로 분류

4)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종류

- (1) 양순음 : 두 입술을 붙였다 떼거나 입술을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2) 순치음 : 아랫입술과 윗니를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3) 치음 : 혀를 윗니 쪽에 붙였다 떼거나 혀를 치아 사이에 넣어서 내는 소리
- (4) 치경음 : 혀를 윗잇몸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5) 후치경음 : 경구개치경음이라고도 하며 혀를 윗잇몸의 뒷부분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6) 치경경구개음 : 전경구개음이라고도 하며, 혀를 치경과 경구개 사이, 경구개의 앞쪽 부분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7) 경구개음 : 혀를 경구개 부분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8) 권설음 : 혀를 말아서 경구개 부분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9) 연구개음 : 혀뿌리를 연구개 부분에 붙였다 떼면서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10) 구개수음 : 혀뿌리를 구개수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11) 인두음 : 혀뿌리를 당겨 혀뿌리를 인두벽에 가까이 해서 내는 소리
- (12) 성문음 : 성대를 짝 막았다가 터트리거나 성대 사이 공간을 좁혀서 내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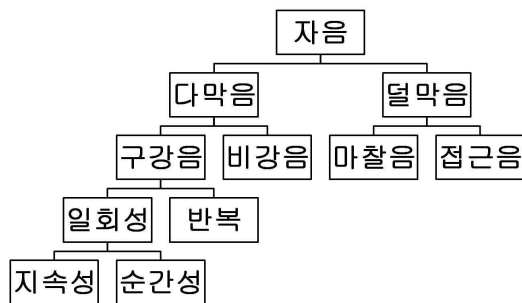
5) 조음 위치에 따른 국어 자음의 종류

- (1) 양순음 : ㅂ, ㅃ, ㅍ / ㅁ
- (2) 치경음 : ㄷ, ㅌ, ㄸ / ㄴ / ㄹ, ㄺ, ㄻ / ㄺ
- (3) 치경경구개음 : ㄷ, ㄸ, ㄹ
- (4) 연구개음 : ㄱ, ㅋ, ㆁ / 받침 ‘ㅇ’

(5) 성문음 : ㅎ

6)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종류

- (1) 조음 방법 : 자음은 기류가 구강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인데, 방해 받는 방식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수 있다.



- (2) 다막음 vs 덜막음 : 폐에서 나오는 기류가 구강에서 완전히 막히느냐, 완전히 막히지는 않고 통로가 좁아지느냐.
- (3) 덜막음 - 마찰음 : 구강의 어느 부분이 좁아져 기류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예: s, h)
- (4) 덜막음 - 접근음 : 구강의 어느 부분이 좁아지기는 하나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좁지는 않는 소리. (예: 활음, r)
- (5) 다막음 - 비강음 : 구강 내에서는 기류가 완전히 막혀 있으나 비강으로 가는 통로가 열려 있어 기류가 비강을 통해 나가는 소리 (예: m, n)
- (6) 다막음 - 구강음 - 반복 : 구강에서 기류가 완전히 막히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막혔다 트었다가를 반복하는 소리 (예: 전동음 = 스페인어의 r)
- (7) 다막음 - 구강음 - 일회성 - 지속성 : 이러한 조음 방법을 가진 소리는 폐쇄음(파열음), 즉 구강 내에서 기류가 완전히 막히는데 막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소리를 말함. (예: p, t, k)
- (8) 다막음 - 구강음 - 일회성 - 순간성 : 구강 내에서 기류가 완전히 막히나 그 막힘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소리. (예: 탄설음 = 국어의 음절 초 /ㄷ/)
- (10) 다막음과 덜막음의 공존 : 파찰음이 이에 해당. 파열음(폐쇄음)과 마찰음의 조음 방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리. 구강 내에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약간 사이를 떴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예: 국어의 /ㅈ, ㅉ, ㅊ/)

7) 국어의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종류

- (1) 파열음 : ㄱ, ㄷ, ㄴ / ㅋ, ㅌ, ㄲ / ㄲ, ㄸ, ㅃ
- (2) 마찰음 : ㅅ, ㅆ / ㅎ
- (3) 파찰음 : ㅈ, ㅊ, ㅉ
- (4) 비음 : ㅁ, ㄴ, 받침 ‘ㅇ’
- (5) 유음 : ㄹ

8) 발성 유형에 따른 자음의 종류

- (1) 유성음과 무성음 : 기류가 성대를 지날 때 성대의 떨림이 있으면 유성음, 없으면 무성음. 모음과 비음, 유음은 유성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성대 진동 유무에 따라 구분 (예: p, b)
- (2) 유기음(기식음)과 무기음 : 자음 발음이 끝난 후 구강을 좁혔다가 넓힐 때 성대가 크게 벌어져서 성대 아래 쪽의 기류가 강하게 따라 나오면서 기식에 의한 소음이 만들어지면 유기음, 성대를 벌리지 않고 좁혀서 성대 아래 쪽의 기류가 거의 따라 나오지 않으면 무기음 (예: 한국어의 /ㄲ, ㅃ/))

9) 한국어의 발성 유형에 따른 자음의 종류

- (1) 평음 : 성대가 벌어지는 정도가 크지 않아 기류가 따라 나오기는 하나, 기식의 정도가 약한 음. 약한 기식음이라는 의미에서 약기음이라고도 함. (ㄴ, ㄷ, ㄱ)
- (2) 격음 : 유기음. 성대가 벌어지는 정도가 커서 강한 기식이 발생함. (ㄲ, ㅌ, ㅋ)
- (3) 경음 : 무기음. 성대가 벌어지지 않아 기식이 발생하지 않음. (ㅃ, ㄸ, ㄲ)
- (4) 기식의 차이는 입 앞에 티슈를 가까이 대고 평음, 격음, 경음을 발음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0) 모음의 분류

- (1) 혀의 높낮이(개구도)에 따라 :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 (2)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 (3) 입술 모양에 따라 : 원순모음, 평순 모음

11) 한국어 모음의 종류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 / ㅞ	ㅓ	ㅗ
저모음		ㅑ	